

# 교통약자 발 역할 톡톡... 고흥 바우처택시 '천원의 행복'

### 장애인·임산부·노약자 요청시 이동 서비스 제공... 부담 상한액 1000원 지난해 13대 도입 年 3만 4761건 이용... 대기시간 단축·이용요금 절감

고흥군이 도입 운영중인 '바우처택시'가 교통약자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해 '바우처 택시' 도입 이후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차량을 요청하면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고흥군은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량배차 지연 등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바우처 택시 13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도 늘면서 군은 지난 9월부터 바우처 택시를 21대로 늘려 운행 중이다.

앞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이용 횟수가 늘면서 휠체어 이용자가 상당시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생겨났다. 장애인 콜센터의 업무량도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고흥군 집계 결과 2022년 바우처 택시 13대 도입 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1만6775건으로 늘었다. 2021년 총운행 건수 6542건이었으나 2.5배 증가한 수치다. 2023년 바우처 택시를 21대로 증차한 이후로는 3만 4761건으로 늘었다.

이용자와 이동 건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이용자 평균 대기시간은 도입 전 40분~1시간에서 20~30분으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도 저렴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만족도도 높았다.

고흥군 바우처 택시 이용료는 전국 최초로 2km까지 기본요금 500원 적용하고 있다. 추가 요금은 1km당 100원으로 군내버스 요금 수준의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최대 이용자 부담 상한액이 1000원으로서 교통약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콜센터 고흥군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이용자에 따른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 대기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며 "바우처 택시 도입 전후로 긍정적 변화가 많았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고흥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고흥군 제공>

## 광양 겨울여행, 낭만 넘치는 '남도한바퀴'

### 매주 토요일 내년 2월까지 운영 미술관·예술창고·배알도 등 경유 광주서 오전 출발 당일 복귀



광양시가 내년 2월까지 운영하는 '남도한바퀴 광양주말여행'의 경유지인 광양예술창고.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겨울철 주말여행에 알맞은 '남도한바퀴'를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남도한바퀴 광양주말여행'은 '눈이 즐거운 행복한 하루 광양주말여행'을 주제로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이 여행에서는 광양 원도심의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옥룡사동백나무숲, 배알도 섬정원 등을 만날 수 있다.

버스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오전 8시 50분에 출발해 광주송정역(오전 9시 20분)을 지난다.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를 찾고 서천면 광양불고기특화거리에서 점심을 즐긴 후 옥룡사동백나무숲, 김시식지, 배알도 섬정원 등 대표 관광지를 여행한다. 이후 오후 6시 25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한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기획전인 송필용 작가의 '물의 서사', 황영성 초대전 '우리 가족 이야기', '아트&테크 : 진동하는 경계를' 등을 만날 수 있

다. 옥룡사동백나무숲에서는 1만여 그루의 동백나무의 장관을 즐기고, 광양김시식지에서는 '김양식'의 역사를 만난다. 망덕포구는 운동주의 정신이 흐르는 공간이다. 운동주의 옥필시고를 간직한 정병옥 가옥이 있다.

남도한바퀴 광양주말여행 이용 요금은 1인당 2만4900원이다. 관광지 입장료와 여행자 보험료, 식비 등은 별도이다.

남도한바퀴 누리집(citytour.jeonnam.go.kr)이나 남도한바퀴 콜센터(062-360-8502), 남도한바퀴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 겨울 주제 '눈이 즐거운 행복한 하루 광양주말여행'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주말엔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오세요"

### 다음달 2일~16일 페스타 축제... 도깨비야시장 등 체험 풍성

"매주 토요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오세요." 곡성군이 다음달 2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화이트레인 페스타 축제를 개최한다.

화이트레인 페스타 축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곡성군에서 주최하고 기차마을전통시장 상인회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단에서 주관한다.

축제에는 음식과 즐거움이 가득한 '도깨비야(夜)시장'과 여러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깨비산타는꽃마을 축제'가 준비돼 있다.

'도깨비야(夜)시장'은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는 내달 2일 오후 5시 '상인과 군민의 밤'이라는 테마로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개최된다. 곡성 노래자랑과 함께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며 지역 가수 공연도 예정돼 있다.

다음달 16일 오후 5시 2회차 도깨비야(夜)시장에서는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특화상품인 토란을 활용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9일 열리는 '도깨비산타는꽃마을축제'는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을 알리고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다.

'곡성 도깨비를 말한다'를 주제로 도깨비 세미나가 열려 도깨비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활성화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 놀이인 종자웃놀이 대회를 개최해 곡성군 지역민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준비돼 있다.

사업단 관계자는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화이트레인 페스타'는 방문객과 상인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됐다"며 "시장이 가진 매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곡성 특산품인 토란을 이용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양제철소, 연료 절감·조업 안정 두 토끼 잡았다

### 고로 열풍로 온도제어 최적화 개발 내년까지 38억원 이상 원가 절감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고로 열풍로 온도제어 시스템을 활용해 풍온을 제어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가 고로 열풍로 온도제어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료 절감과 조업 안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29일 밝혔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고로(용광로)는 쇠물을 생산하기 위해 풍구를 통해 뜨거운 바람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열풍로는 고로에 1000도 이상의 초고온의 바람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광양제철소는 축열실에 열을 저장한 후 바람을 통과시켜 뜨거운 바람으로 만드는 축열 방식의 열풍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 풍온이 유지될 만큼만 열을 저장하는 것이 열효율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광양제철소 제선부와 EIC기술부는 이에 따라 적정 풍온 확보를 위한 열풍로 온도제어 프로그램 고도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열풍로 설비가 고로 조업과 직결된 만큼 풍온제어 시스템 개발이 풍온 편차를 줄이면서도 조업안

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열효율 개선이 이뤄지면서 혼합가스 사용량도 대폭 저감됐다. 광양제철소는 2024년 38억원 이상의 원가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O<sub>2</sub>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1만 2000t 이상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150만 그루의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탄소량과 동일하다고 제철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술 개발에 참여한 이진우 광양제철소 제선부 대리는 "EIC기술부와 팀 동료들이 있었기에 이번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설비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광양제철소가 친환경 그린(Green) 제철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각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순천형 일자리 개발' 노사민정 해법 찾기



순천시가 지난 28일 연 '2023년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론화 토의에서 참석자들이 '순천형 일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순천시 제공>

### 전문가 등 50여명 토론회

순천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순천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사민정 토론회를 지난 28일 열었다.

'2023년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론화 토의는 이날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마그네슘·경금속 기업체 산업 전문가와 순천시 노사민정 관계자,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해 '순천시 일자리'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주요 의제는 ▲순천형 일자의 성공 요인 ▲일자리 모델 특수목적법인설립과 지역경제 주체별 협력 사항 ▲적정사회적 임금 등이었다.

참석자들은 이들 의제에 대해 토의하며 일자리 상생 협약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최종적으로 산업동성장원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지정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비 1억3000만원, 읍해 국비 1억7000만원을 각각 받아 순천형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경금속 기업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간 가치사슬을 구축했다.

한편 순천시는 오는 12월 상생 협력 지역 일자리 협력 공동선언을 진행해 공모사업 유치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청년이 정주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여수시 내년 공공일자리 희망자 모집

### 390명 다음달 11~15일 신청

여수시가 다음달 11~15일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390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은 2월16일부터 6월28일까지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공공근로사업 35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0명 등 총 390명이다.

여수에 사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자 사업

참여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액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우선 선발된다.

단 사업 유형에 따라 나이 제한이 있어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한다.

사업 참여 선발자는 정보화·공공서비스·환경정비 사업 등에 투입된다. 시간당 임금은 9860원이다.

65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 25시간 근무하고, 65세 이상 근로자는 주 15시간 일한다.

정보화 사업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한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담당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는 가구소득과 재산액,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등 선정기준에 따라 내년 2월1일 최종 선발자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김태완 여수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취업 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과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대상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보성군, 고흥사랑기부제 '1+1+1' 이벤트

### 12월 한 달 10만원 이상 기부시 세액공제+답례품+경품 지급

보성군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1(세액공제)+1(답례품)+1(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보성군은 이벤트 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홍보 물품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고흥사랑이(e)음 또는 NH농협에 방문, 보성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 뒤 답례품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당첨자는 2024년 1월 2일 개별 발표한다. 당첨자 5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고흥사랑기부제 홍보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10만 원까지 연말정산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만큼 많은 분이 이벤트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